

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· 박강산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의원입니다.

-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로
및 직업 탐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
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
습니다.

-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
보면, 초등학생 21.7%, 중학생 41%, 고등학생 25.5%가
장래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중학생의 경우 54.6%가 ‘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

라서', 두 번째로 19.8%가 '내가 잘하는 것(강점)과 못하는 것(약점)을 몰라서'를 이유로 희망 직업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

-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, 직·간접적인 직업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스스로 가치관 형성과 적성 및 흥미를 파악하는 청소년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.
- 새로운 직업이 희망 직업 순위에 등장하는가 하면 선호되던 전통적인 직업들이 희망 직업 후 순위로 하락하는 등 한정된 직업군 내에서 이루어지던 진로 교육 현장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직로 개발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, 진로 진학 정보와 진학 상담 서비스 및 진로 체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진로교육센터의 기능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·직군 연구·분석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.
- 희망 직업이 없다고 해서 미래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는

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청소년기 다양한 진로 탐구와 직업 체험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수월하게 자신에게 맞는 직업 탐색과 훗날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